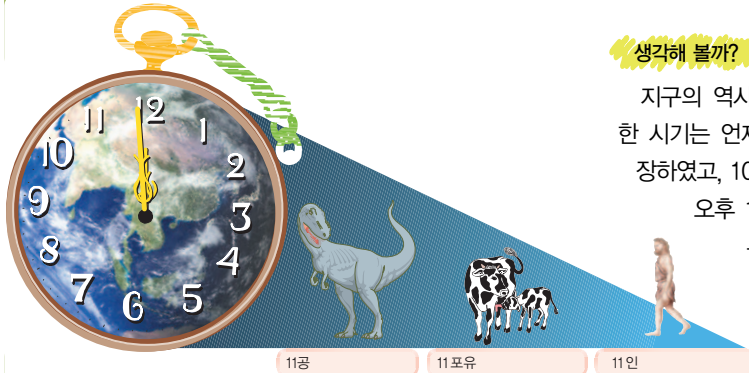


2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지역의 선사 문화

● 이 단원에서는 ● 인류의 출현과 진화 과정을 이해하고 인류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을 설명하고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다. | 신석기 시대 농경과 목축의 시작으로 나타난 생활 모습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1 인류의 출현과 구석기 시대



최초의 인류가 탄생하다

최초의 인류는 약 400만 년 전 아프리카에 살았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이다. 인류는 동물과 달리 두 발로 서서 걸었고, 자유로워진 두 손을 이용하여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약 180만 년 전 인류는 불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았고, 간단한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류는 훌륭한 사냥꾼으로 성장하였으며, 죽은 뒤의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체를 매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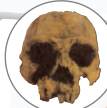
오늘날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은 약 4만 년 전에 등장하였고, 외모나 지능이 오늘날 인류와 거의 비슷하였다. 이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그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면서 서로 다른 인종적인 특징이 나타났다.



600CC



● 오스트랄로피테쿠스(약 400만 년 전) 두 발로 걸으며 간단한 도구를 썼다.



900CC



● 호모 에렉투스(약 180만 년 전) 불과 언어를 사용하였다(베이징 인, 자바 인).



1,300CC



● 호모 사피엔스(약 40만 년 전) 시체를 매장하는 풍습이 있었다(네안데르탈 인).



1,500CC



● 호모 사피엔스(약 4만 년 전) 오늘날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이다(크로마뇽 인).

돌을 깨뜨려 도구를 만든다

인류는 오랫동안 나무나 동물의 뼈, 돌을 깨뜨려 만든 펜석기를 사용하였는데, 이 시기를 구석기 시대라고 한다. 구석기인들은 처음에 주먹도끼, 긁개와 같이 하나의 펜석기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후 석기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쓰임새에 맞는 여러 가지 형태의 펜석기를 만들어 썼다.

구석기인들은 열매나 곡식을 채집하고 사냥과 물고기 잡이를 통해 식량을 마련하면서 먹잇감을 찾아 이동하는 생활을 하였다. 이들은 무리지어 생활하면서 추위와 비바람을 피해 동굴에 거주하거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다. 또한 동굴 벽에 들소, 말, 사슴 등을 그려 사냥감의 번성과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였으며, 풍만한 여인상을 조각하여 다산과 풍요를 꿈꾸었다.

70만 년 전부터 지금의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도 구석기인들이 살기 시작하였다. 평남 상원 검은모루 동굴, 경기도 연천 전곡리, 충남 공주 석장리 등의 유적에서는 동물 화석과 함께 주먹도끼, 자르개 등 펜석기가 발견되었고,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는 다섯 살 정도 된 어린아이의 뼈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오스트리아)

